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간의 관계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안 진 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간의 관계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안 진 민

인 준 서

안진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부모와 유아의 개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셀프 리더십은 부모와 유아의 개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학부모 2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들에게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부재된 응답이나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응답의 성실도가 양호한 설문지를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총 290부를 회수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도구는 김정(2005)이 개발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유아 셀프 리더십은 이명숙(2006)이 개발한 유아 셀프 리더십 척도(Scale of children self-leadership)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연구문제에 따라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 상관

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버지의 연령,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전업주부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연령이,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셀프 리더십은 아버지의 연령과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셀프 리더십의 건설적 사고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셀프 리더십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가사활동과 생활지도는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유아의 셀프 리더십의 전체 및 건설적 사고와 자연적 보상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기관리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전체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24.2%로 나타나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현대사회에서의 아버지 역할	7
1) 아버지 역할의 변화	7
2) 아버지 역할과 양육참여의 중요성	8
3)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2. 유아의 셀프 리더십	15
1) 셀프 리더십의 개념과 필요성	15
2) 유아 셀프 리더십	17
3. 선행연구	20
III. 연구방법	24
1. 연구 대상	24
2. 연구 도구	26
3. 연구 절차	27
4. 자료 분석	28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0
1. 일반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30
2. 유아와 부모의 일반 변인에 따른 유아 셀프 리더십	36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간의 관계 ..	44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47
V. 논의 및 결론	50
1. 요약 및 논의	50
2. 결론 및 제언	56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유아의 셀프 리더십 하위변인 및 개념정의	19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표 3> 아버지 양육참여도 설문지의 구성	26
<표 4> 유아 셀프 리더십의 하위변인별 문항 구성	27
<표 5> 유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30
<표 6>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31
<표 7>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32
<표 8>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34
<표 9> 월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36
<표 10>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 셀프리더십	37
<표 11>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유아 셀프리더십	38
<표 12>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유아 셀프리더십	39
<표 1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아 셀프리더십	40
<표 14> 월 소득에 따른 유아의 셀프 리더십	42
<표 15> 형제 수에 따른 유아의 셀프 리더십	43
<표 16>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셀프 리더십	44
<표 1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간의 관계	46
<표 1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47
<표 1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변인이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48
<표 2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48
<표 2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연적 보상에 미치는 영향	49
<표 2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건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며 울타리 없는 세계화 사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자기 계발을 위한 끊임없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없으며,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 또한 많지 않다. 현대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는 아주 작은 개인의 목표에서부터 크고 작은 조직의 공동목표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그 안의 조직원들을 잘 융합하고 격려하며 더불어 같이 하도록 유도하는 역량을 키우기는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리더는 리더십 교육을 통해 리더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최남례, 2005). 특히, 유아 스스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및 행동전략을 셀프 리더십(Manz & Sims, 1990)이라고 하는데, 이 셀프 리더십은 유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직면하고 처리하면서 쌓아온 본인만의 가치관 및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셀프 리더십을 교육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아이의 발달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아버지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자관계는 모자 관계보다 늦게 시작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생후 2년째부터 자녀의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되고 이후의 인격형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Lamb, 1981).

전통사회에서 가족 역할을 봤을 때, 아버지는 가족에 대해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을 책임지는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담당하여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머니를 보완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가족구조가 변화되었고, 현대 사회로 들어와서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여성들의 취업은 날로 늘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역할 중 자녀 양육참여라는 부분까지도 어머니와 분담하게 되면서, 자녀양육과 가사영역이 더 이상 여성 고유의 과제가 아니며 부부 공동의 과제로서 인식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이 유아기보다는 초등학교시기부터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유아기의 경험이 훗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참여도는 유아기부터 강조되어야 하고 그 중요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신, 1999).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도 양육 문제는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아버지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구조나 기능이 변화되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간주되었던 자녀양육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자녀에 대한 제반 문제는 부모의 공동 관심사 및 책임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이미선, 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숙(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 가사 및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충분히 해주어야 유아의 대인관계가 좋고 타인과 잘 협력하며 받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근면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박정원(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른 역할로 유아의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로부터 받는 서로 다

른 자극은 부모의 어느 한쪽에서만 받는 일방적인 자극에 비해서 유아의 인지,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광웅과 이인수(199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하며 자녀와 관련된 가사활동에 잘 참여할수록 자녀는 사회적 활동성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 정서적 갈등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녀양육에 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최근 들어 아버지의 존재 및 태도와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몇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버지 자신과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이정순, 2003; 정현희, 2003).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유아의 리더십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리더십은 경험과 교육에 의해 습득될 수 있으므로 유아기의 리더십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최남례, 2005; Covey,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분야에서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진혜(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만 아이의 놀이에 참여한다면 가족 간의 정서적 연대감이 부실해지므로, 아버지가 아이와 놀아주는 행위는 정서의 완성이며 유아의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유아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어 역사는 매우 짧으나, 이러한 연구의 시작은 새로운 유아 리더십의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아의 리더십 중 셀프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가장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Covey(2003)도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한국 영 리더십 센터는 유아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인 ‘멋진 영 리더를 위한 7가지 습관’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도성은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습관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Manz와 Neck(2004)도 보다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효과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현재까지의 유아 셀프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가 대상인 셀프 리더십 평가를 위한 도구개발(이명숙, 2006; 최자윤, 2009)과 유아 셀프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김미선, 2005; 이명숙, 조희정, 2006, 정유정, 2007), 유아 셀프 리더십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박미숙, 2008; 이현숙, 2008), 유아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 연구(김미진, 2009; 이진미, 2011)들이 있다. 또한 유아 셀프 리더십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분석(서기남, 2009), 아버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의 관계(문병환, 김세루, 2011)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유아 셀프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중반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변인이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와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 및 자녀양육참여가 셀프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 설정은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부모와 유아의 개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유아의 셀프 리더십은 부모와 유아의 개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아버지 양육 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자녀에 대한 관심도, 생활지도, 가사참여, 놀이상대로써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물리적·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양적 정도로 정의되며(정현희, 최경순, 1995), 본 연구에서의 아버지 양육 참여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 유아의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유아 셀프 리더십이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한

개인인 유아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을 미치고 리드하기 위해 취하는 사고와 행동'을 의미한다(이명숙, 2006). 본 연구에서의 셀프리더십은 자기관리,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의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차원에 포함되는 하위 영역은 자기목표설정, 자기연습, 자기통제, 정신적 보상, 신체적 보상, 자기기대, 기회사고, 문제해결력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사회에서의 아버지 역할

1) 아버지 역할의 변화

가족이란 부모·자식·부부, 입양 등의 관계로 맺어져 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집단이다. 인류의 발생과 때를 같이하는 가장 오랜 집단이며,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이처럼 보편성과 영구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그 형태나 기능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 및 기능에 있어서는 시대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사회의 가장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단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 가족 기능 중 일부는 다른 사회기관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약화된 반면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기능이나 가족 구성원의 긴장과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능,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은 오히려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가족의 기능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듯이 미래에도 변화할 것은 사실이지만, 남녀가 결혼을 하여 자녀 출산하고, 자녀 양육과 사회화를 도우며, 가족원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부모의 개념은 엄부자모(嚴父慈母), 엄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자녀의 역할모델과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지원자 및 의사결정자이며, 자녀에게 사회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어머니는 자녀의 인성형성 및 교육과 건강, 위생관리 등의 양육문제는 대부분 어머니가 전담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아버지의 전통적 역할인 도구적, 수단적 역할 특성과 더불어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인 표현적, 애정적 역할 특성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누가 수행 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규정되는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역할 형태인 양성적(androgynous)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양득주, 1988).

또한 현대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과거에 어머니가 담당하였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도도 높아졌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더 이상 양적인 참여적 요구에서 벗어나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사회적 참여의 적극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아동에게 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이현정, 2005).

즉, 현대적 의미의 아버지 양육참여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의 분담과 더불어,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녀의 정신적·사회문화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모습까지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버지 역할과 양육참여의 중요성

인간은 태내에서부터 부모의 유전적 요인과 외부 환경의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자극을 받아, 본인의 자아를 형성해 간다. 이러한 많은 요인들 중 태내에서부터 형성하게 되는 가장 최초의 인간관계와 성장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부모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및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출생부터 자녀와 끊임없는 접촉을 통하여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자녀가 사회화 및 동일시를 하려는 모델로서 일차적 책임과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어머니의 특성과 행동은 자녀의 정서, 사회, 신체지능 및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김석현, 2006). 이렇듯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참여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혜경, 2005; 현미숙, 2004). 첫째, 어머니의 양육은 자녀의 인지, 자아, 도덕, 친사회적 발달 등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건강과 발달을 도우며, 자녀에게 기대되는 잠재적 변화와 일치하는 발달변화를 위한 보호, 돌보는 역할을 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은 자녀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단기욕구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물리적 자원을 제공하여 자녀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안전감을 느끼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은 일관적이면서도 융통성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하루일과를 조직하는데 도우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상에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산업화와 그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한 핵가족화 및 가족 기능의 축소화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가정 및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요구에 맞춰 현대의 아버지들은 나름대로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집단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정신적 지주로서 가정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려는 최소한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며, 그 속에서 형성한 습관은 인생의 평생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영애와 이영자(2003)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수용에 대한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박운영(2005)과 어옥자(200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은실(2007)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한 아버지 집단이 부모역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의 하위영역인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양육참여 활동의 발달적지지, 자녀돌보기, 함께하는 활동)과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지원제공자로서의 책임,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모두에서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생활의 만족감은 부모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 역할 기술을 좋아지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아버지는 부부관계에 만족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 양육참여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김정, 2005)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요한 개념인 아버지 양육참여의 내용을 Bigner(1979)는 아버지 자녀양육참여에 아동돌보기, 아동과 놀이 및 운동을 하거나 집안 일,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등 가정에서의 활동, 사회생활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을 가르치고 공동생활에서의 아동과의 활동, 책을 읽어주거나 아동의 신상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신체적 애정표시 및 훈육하는 역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Baruch와 Barnett(1986)가 정의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개념은 유아들의 모임(생일, 소풍, 운동회)이나 병원, 유치원,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데려오기, 자녀의 선생님을 방문하거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기, 아동의 방을 청소하거나 잠자리를 살펴주기, 아동의 옷이나 필요한 물건 사주기, 아동과 함께 외출하기, 아동의 건강보살피기 등이다.

Parke(1981/1989)는 아버지 역할을 2세기 동안의 개념 변화를 통해,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버지의 역할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도덕적 안내자, 가족부양자, 성역할 모델, 양육적인 보호자 등의 모습으로 변화되

어 왔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유효순과 지성애(2004)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개념을 아버지로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보다 더 도움을 주며 사회의 대표자로 가족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가족과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기술, 즉 아버지를 모델로 하여 배우는 가치관과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관한 개념은 각 연구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하나,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마주하고 자녀 양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자녀에 대한 이타심과 관대함을 기르고, 특히 남아의 경우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Hoffman, 1977).

3)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와 관련된 일반 변인을 중심으로 유아의 성별, 아버지의 연령 및 학력, 어머니의 취업 유무, 가정의 사회 및 경제적 배경 등의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아의 성별

아버지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자녀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준다.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리 행동하며, 여아에 비해 남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Harris와 Morgan(1991)은 딸만 있을 때보다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양육에 더 능동적이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인수(1998)의 연구에서도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가 남아일 때 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양육참여에 조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김은정, 2002; 김희주, 1997; 정현희, 최경순, 1995). 이들은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2) 아버지의 연령 및 학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연령과 학력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연령이 높거나 낮을수록 자녀의 양육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김미영, 1984; 허경옥, 1994a; Binger, 1979)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Barnett와 Baruch(1986)는 아버지의 연령이 자녀의 양육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허선자, 1992에서 재인용). 이에 김은정(2002), Volling과 Belsky(1991)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길고,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부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가 나타난 연구도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직접 자녀 양육참여에 관한 설문지를 측정하여 연구한 것이 많아 아버지의 주관성을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Volling Belsky(1991), 최경순(199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양육참여를 나타냈으며, 그 중 생활지도와 여가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우미경(2006), 김은정(2002), 김경희(2000), 성귀자(1999)의 연구에서는 특히,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아버지 집단이 자녀양육 참여의 여가활동이라는 하위요인에서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지희(2005), 한은규(2004), 이인숙(199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버지의 학력은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많은 수의 아버지를 표집하지 못하고 연구가 실행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어머니의 취업 유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도 속한다. Barnett와 Baruch(1986, 재인용), Volling와 Belsky(1991)의 연구 결과에서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 Hoffman(1977, 재인용)은 아내가 직업을 가질 경우 가정 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가 변화되고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 한다고 하였다.

또한 권미선(201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이 전일제일 때 시간제, 전업주부보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취업으로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경우 신체 돌보기 및 생활지도에 있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binson도 취업한 부인의 남편들은 시간제나 취업하지 않은 부인의 남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양육에 할애

하고 있다고 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의 Russell의 연구에서도 부부 모두가 직업을 가진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서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보다 2배 더 많은 시간을 자녀양육에 할애하고 있다고 하였다(Parke, 1981). Lamb(1981)도 아내가 직업이 있을 때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중 가사활동 참여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에 박정원(2003)은 인지적 성취지도 참여까지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김영주(1995)가 지적하였듯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가족의 적응방식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안병철(1990)은 아내의 직업유무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고, 강란혜(198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현희와 최경순(1995)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이행옥(1988)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직업 유무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의 관계와 의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가정의 사회 및 경제적 배경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가정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가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김유경(2002)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 의무감을 덜 느끼는데, 아내들이 내조차원에서 자녀양육을 도맡아 아버지들의 경제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허선자, 1992)으로 보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차은영(198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Deacon은 중·상류 가정의 경우, 주부가 자녀양육에 관한 역할을 공유하므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참여가 하류층보다 높다고 보고(최한순, 1995에서 재인용)하였고, Harris와 Morgan(1991)도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기회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2. 유아의 셀프 리더십

1) 셀프 리더십의 개념과 필요성

리더십이란 한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집단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아가 집단 내의 규범을 통해 특정한 사회적 규범을 창출해 내는 행동이다. 또한, 리더십은 주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과 기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여 자신의 정체감 확립과 자신이 속한 조직 속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20세기 이후, 현대사회에서 리더에게 요구하는 시각도 매우 세분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내부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점의 셀프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Manz & Sims, 2002), 이 셀프 리더십은 개인의 행동 및 정신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지이론과 일(task)자체가 내재적 동기부여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심리학의 내재적 동기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셀프 리더십은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리더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 리더십과는 달리 한 개인이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을 미치고 리드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셀프 리더가 될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방식을 셀프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이명숙, 2006).

셀프 리더십(self-Leadership)의 정의를 살펴보면, Manz(1986)는 정신적 전략, 인지적 전략과 행동적 전략들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효과성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인의 향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다. 이후 리더에게 요구하는 시각이 점차 세분화됨에 따라, 1990년에는 Sims와 함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과정’, 즉 ‘자기영향력(self-influence)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정의 내렸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오숙현(2003)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와 행동전략을 말하며, 본인 스스로의 능력 증진을 위하여 성과 지향적 관점에서 목표를 정해 평가하고 보상하는 자기 안의 성취 지향적 리더십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였다. 유대원(2003)은 구성원과 리더의 입장으로 나뉘 셀프 리더십을 정의하였는데, 구성원 입장에서는 자기규제 및 자기통제에 의해 자신 스스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셀프 리더십이고,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개별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였다.

요약하면 셀프 리더십이란 개인적 사고패턴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동기의 가치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과 자기관리 전략을 포함하고 있을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넓은 자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셀프 리더십은 자신으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을 말한다. 셀프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셀프

리더십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유아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학습에 의해 배울 수 있는 능력이자 기술이다(이명숙, 2006). 셀프 리더십은 단기간에 습득되어지지 않는다. 즉, 셀프 리더십의 핵심인 사고양식과 태도에 대한 내면화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으므로(최자윤, 2009) 셀프 리더십 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Kagan(1994)은 유아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리더십의 공유정도에 따라 리더십 유형을 독단적 리더십(sole leadership), 지원적 리더십(supported leadership), 이중적 리더십(dual leadership), 공유적 리더십(shared leadership)으로 나누었다. 독단적 리더십은 개인이 홀로 강력한 권력을 갖기 때문에 구성원과 리더십을 공유하지 않는다. 지원적 리더십은 리더가 다수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은 정당한 권력을 갖게 되어 보호자 또는 후원자 역할을 하며 추종자들은 리더의 안내, 정보 제공, 충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 이중적 리더십은 두 명의 정당한 권력을 가진 리더 사이에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적 리더십은 협동 활동 시 리더와 구성원들 간에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유아들도 카리스마적 리더의 모습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서로 돕고 나누며, 협력하는 등의 공유적 리더십으로 전환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유정(2007)은 유아의 셀프 리더십을 내부적으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잘 이끌어 행동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셀프 리더십의 주요한 요소로 개념 정의하였다. 이것은 유아가 자기관리 방법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교육과정에서 셀프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다시 말해, 유아기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습관이 밴 유아는 본인 스스로의 일이 잘 이뤄지면 자신감이 상승되고, 그릇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까지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친구관계도 형성하고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유아 셀프 리더십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한 개인인 유아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을 미치고 리드하기 위해 취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셀프 리더가 될 유아 스스로 사고하고 관리하며 보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명숙, 2006).

유아들을 대상으로 셀프 리더십 척도 관련연구자들 가운데 이명숙(2006)은 유아의 사고방식으로서의 셀프 리더십 요인과 수업활동 프로그램 구안을 통해 효율적 사고 훈련기에 있는 유아기에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리드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 요인을 분석하여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자기관리,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의 3개 상위구인에 '목표설정, 리허설, 자기관찰, 평가, 자기강화, 자기보상, 자기기대, 기회사고' 등 7개의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영리더십센터에서는 스티브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기본으로 하고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성품 개발을 위한 셀프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유아로 성장시켜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행복한 유아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로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유아 7H 리더십 프로그램(The 7Habits of Highly Effective Young Children)'을 개발하였다(도순후, 2010).

Fukada, Fukada와 Hicks(1994)는 만 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연구를 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15가지의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여 2차원(놀이촉진과 놀이친구의 배려-평가)으로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 셀프 리더십(이명숙, 2006) 관련 하위변인은 자기 관리,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의 3개 차원으로 분류되며, 각 차원에 포함되는 하위 영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유아 셀프 리더십의 하위변인 및 개념정의

하위변인	개념정의
자기 관리	자기 목표 설정 자기 자신의 일의 결과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 좋아함과 중요함의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설정
	자기 연습 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을 미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연습하는 태도 ☞ 과제 달성 위해 반복
	자기 통제 의도와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금지된 행동,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 ☞ 감정표출을 통해 행동 통제하기
자연적 보상	정신적 보상 과업이나 활동에서 자기강화나 내적 도전 일으키게 자신에게 보상하는 방법 ☞ 과업수행에서의 즐거움
	신체적 보상 어떤 바람직한 행동에 따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 ☞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자신 또는 타인의 칭찬
건설적 사고	자기 기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도전 극복과 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자신 능력 확신 의미 ☞ 과제 수행의 성공을 예측하는 힘
	기회 사고 어려움을 장애로 보지 않고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패턴, 기회와 가치 있는 도전과 도전적 상황에 대한 건설적인 대처 방식 ☞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통해 도전과제 수행하기
	문제 해결력 특정문제나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새로운 반응을 생성하거나 가능한 반응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등 문제 해결 행동을 이끄는 사고력으로 장애

나 어려운 점을 감지하며 그 문제에 관한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평가하는 과정

☞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 고안하기

출 처: 박현정(2008). 만3세 유아를 위한 리더십교육효과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요인들과 관련 있는 선행연구들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유아의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본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비롯하여 사회적 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어머니와 다른 측면에서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 시킨다고 하는 연구의 결과들(김정신, 1999; 최한순, 1995; Barbett & Baruch, 1986)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송민선(2009)의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하위영역 사이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사이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경숙(2000)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참여하며, 자녀와 관계된 가사활동에 잘 참여하고 자녀의 인지적 성취를 위한 교육적 활동에 조력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안정적인 사회·정서 발달적 특성으로서 독립적이고 내적 통제력이 강하며 동료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자녀가 대인관계에서도 사회, 정서적 갈등 상황도 잘 극복해내는 인지적 전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Lamb(198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이 촉진되며 감정이입 능력이 발달하고, 성 정체화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온정과 허용을 가지고 임했을 때 자녀는 더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적의를 나타내지 않는 건전한 성인이 되어서 성인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Lynn, 1974).

국내 연구들도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 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귀자, 1999; 박정원, 2003; 우미경, 2006; 오정인, 2012).

김영숙(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 중 생활지도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하며 가사활동 및 학습지도에 아버지가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경험을 풍부히 해주어 아동의 대인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여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근면함을 지니게 한다고 했다.

이인수(199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여가활동, 생활지도, 자녀와 관계된 가사활동, 그리고 자녀의 인지적 성취에 참여할수록 그 자녀는 사회적 활동성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양육참여도가 높은 아버지의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갈등 상황도 잘 극복해내는 인지적 전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의 놀이, 습관, 학습지도에 아버지가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경험은 풍부하게 해 주어 다양한 자극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키워 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희와 최한순(1995)도 아버지의 능동적인 자녀양육 참여는 자녀의 도덕

성과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즉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고 애정적일 때 자녀가 보다 내면화된 이타심과 관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양이 적지만(문미옥, 1983; 이옥자, 1983; 이행옥, 1988), 그 중에서도 아동 양육참여도가 높은 아버지의 자녀는 독립성과 사회성, 활동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Rrssel, 1978).

유아의 정서적발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익새(201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아버지가 돌보기 및 지도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통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배(201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로는 유아 리더십과 유아의 개인변인의 관련성 연구(서기남, 2009; 임혜성, 2010), 가정환경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리더십과의 관계 연구(김지연, 2007; 민혜진, 2009; 이은미, 2006) 등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우정순(2009)은 유아의 기질과 유아 리더십 관계 연구한 결과, 유아의 기질 특성과 유형 및 리더십 요인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유아의 개인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강은아(2010)의 연구에서는 유아 기질 유형에 따라 셀프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유아의 기질 외에도 유아의 성별, 형제유무, 유아교육기관 경험기간, 또래경험 등도 유아의 리더십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김기영, 2005; 김덕희, 2005; 서기남, 2009; 임혜성, 2010).

가정환경과 유아 리더십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

록, 어머니의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를 자주 받을수록, 그리고 가정에서 정서적이며 독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줄수록, 다양한 놀이자료를 준비해주는 환경을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서기남, 2009).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리더십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래와 같다.

권미선(2011)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전체는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유아 리더십 전체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김종호(2011)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놀이 참여와 유아의 리더십은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거부적 태도에서 유아의 리더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적 통제적 자율적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전체적으로 유아의 리더십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미순(2006)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거부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미숙(2008)은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태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은 정적 상관이 있고, 거부적 태도는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적이고 허용적인태도가 유아의 자기관리,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들의 학부모 2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들에게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298개의 설문지 중 부재된 응답이나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응답의 성실도가 양호한 설문지를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총 290부를 회수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290명을 대상으로 배경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143명(49.3%), 여아 147명(50.7%)이고, 형제유무는 형제있음이 236명(81.4%), 외동이 54명(18.6%)이다.

아버지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115명(39.7%), 40대 이상이 175명(60.3%)이고, 학력은 고졸이 20명(6.9%), 전문대졸이 38명(13.1%), 대학교졸이 163명(56.2%), 대학원졸 이상이 69명(23.8%)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226명(77.9%), 40대 이상이 64명(22.1%)이고, 학력은 고졸이 38명(13.1%), 전문대졸이 60명(20.7%), 대졸이 171명(59.0%), 대학원졸 이상이 21명(7.2%)이다.

가족의 월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53명(18.3%), 300-400만원 미만이 192명(66.2%), 400만원 이상이 45명(15.5%)이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유아	성별	남아	143	49.3
		여아	147	50.7
	형제유무	있음	236	81.4
		없음	54	18.6
아버지	연령	30대	115	39.7
		40대	175	60.3
	학력	고졸	20	6.9
		전문대졸	38	13.1
		대학교졸	163	56.2
		대학원졸 이상	69	23.8
어머니	연령	30대	226	77.9
		40대	64	22.1
	학력	고졸	38	13.1
		전문대졸	60	20.7
		대학교졸	171	59.0
		대학원졸 이상	21	7.2
취업유무	비취업	62	21.4	
	시간제 취업	87	30.0	
	종일제 취업	141	48.6	
가족	월 소득	300만원 미만	53	18.3
		300-400만원 미만	192	66.2
		400만원 이상	45	15.5
계			290	100.0

2. 연구도구

1) 아버지 양육참여도 측정도구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남편의 양육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Lamb(1974), Bigner(1979), Brauch와 Barnett(1981)의 연구와 최경순(1993)의 자유 기술형 질문지인 아버지 참여도 검사 도구를 수정 보완한, 김정(2005)의 25문항으로 구성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참여도 도구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단계 척도에 의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대한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아버지 양육참여도 설문지의 구성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
여가활동	12	1, 5, 7, 9, 11, 12, 14, 18, 19, 23, 24, 25	.90
생활지도	9	2, 4, 6, 10, 13, 16, 17, 21, 22	.81
가사활동	4	3, 8, 15, 20	.74
계	25		.86

2) 유아의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유아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명숙(2006)이 개발한 자기관리,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의 3영역,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아 셀프 리더십 척도(Scale of children self-leadership)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응답방식은 어머니가 유아를 직접 평가하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Likert식 4단계 척도에 의해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1, 2, 3, 4의 점수로 배점하며 셀프리더십의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아 셀프리더십 전체의 신뢰도는 .86로 나타났다으며, 하위변인 자기관리의 신뢰도는 0.87, 자연적 보상의 신뢰도는 0.64, 건설적 사고의 신뢰도는 0.81로 나타났다.

<표 4> 유아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별 문항 구성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
자기관리	18	자기목표설정	1, 6, 11, 19, 23, 34
		자기연습	12, 16, 24, 27, 35, 39, 47
		자기통제	2, 7, 20, 43*, 46*
자연적 보상	8	정신적 보상	25, 28, 32, 36
		신체적 보상	38, 42, 44, 49
건설적 사고	25	자기기대	3, 8, 13, 17, 29, 40, 50
		기회사고	4, 9, 14, 18, 21*, 30*, 33*, 37, 41, 45, 48, 51
		문제해결력	5, 10, 15, 22, 26, 31
계	51		.86

*부정문 역코딩문항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는 도구의 적절 여부와 소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교회의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문항 이해의 적절성 및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 하였으나 별다른 어려움이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도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실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2) 본 조사

본 연구를 위한 표집은 서울, 경기 일대의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 집, 직장 및 법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한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학부모 350명을 임의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에게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최종 설문지를 우편 및 방문을 통해 배포하고 수거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는 선별하여 자료처리에서 제외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 셀프리더십이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지 살펴보고, 아버지 양육참여, 유아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셀프리더십은 개인변인(연

령, 취업유무,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의 성별 등)에 따라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일반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성별

유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유아의 성별

		N	M	SD	t
여가활동	남아	143	3.63	.905	.407
	여아	147	3.58	.831	
	합계	290	3.60	.867	
생활지도	남아	143	3.26	.900	-.337
	여아	147	3.29	.922	
	합계	290	3.27	.910	
가사활동	남아	143	3.63	.936	-.325
	여아	147	3.66	.838	
	합계	290	3.65	.886	
전체	남아	143	3.50	.808	-.103
	여아	147	3.51	.761	
	합계	290	3.51	.783	

표 5와 같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총점은 남아는 평균 3.50($SD=.81$), 여아는 평균 3.51($SD=.76$)로 자녀의 성별이 여아일 때,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에서는 남아($M=3.63, SD=.91$), 여아($M=3.58, SD=.83$)의 순, 생활지도에서는 여아($M=3.29, SD=.92$), 남아($M=3.26, SD=.90$)의 순, 가사활동에서는 여아($M=3.66, SD=.84$), 남아($M=3.63, SD=.94$)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아버지의 연령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자녀양육참여도의 전체 평균은 3.51($SD=.78$)이었고, 30대의 평균은 3.34($SD=.81$), 40대의 평균은 3.62($SD=.7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095, p<0.01$).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의 전체평균은 3.60($SD=.87$), 생활지도의 전체평균은 3.27($SD=.91$), 가사활동의 전체평균은 3.65($SD=.89$)로 모두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은 40대의 평균은 3.71($SD=.85$), 30대의 평균은 3.44($SD=.8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69, p<0.01$). 생활지도에서는 40대의 평균이 3.38($SD=.91$), 30대의 평균은 3.11($SD=.9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565, p<0.05$). 가사활동에서는 40대의 평균이 3.78($SD=.82$), 30대는 평균 3.46($SD=.9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30, p<0.05$).

<표 6> 아버지의 연령

		<i>N</i>	<i>M</i>	<i>SD</i>	<i>t</i>
여가활동	30대	115	3.44	.87	2.669**
	40대	175	3.71	.85	
	합계	290	3.60	.87	
생활지도	30대	115	3.11	.90	2.565*
	40대	175	3.38	.91	
	합계	290	3.27	.91	
가사활동	30대	115	3.46	.96	2.930*
	40대	175	3.78	.82	
	합계	290	3.65	.89	
전체	30대	115	3.34	.81	3.095**
	40대	175	3.62	.74	
	합계	290	3.51	.78	

* $p < .05$ ** $p < .01$

3)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자녀양육참여도의 전체 평균은 3.51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졸 이상이 3.72($SD=.64$), 대졸이 3.59($SD=.73$), 전문대졸이 3.15($SD=.92$), 고졸 이하가 2.75($SD=.7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568$, $p < 0.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의 전체평균은 3.60($SD=.87$), 생활지도의 전체평균은 3.27($SD=.91$), 가사활동의 전체평균은 3.65($SD=.89$)로 모두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표 7> 아버지의 학력

		<i>N</i>	<i>M</i>	<i>SD</i>	<i>F</i>	<i>Duncan</i>
여가활동	고졸 이하	20	3.04	.85	6.884***	d>c>b>a
	전문대졸	38	3.23	1.00		
	대졸	163	3.69	.82		
	대학원 이상	69	3.76	.79		
	합계	290	3.60	.87		
생활지도	고졸 이하	20	2.53	.81	9.068***	d>c>b>a
	전문대졸	38	2.91	.98		
	대졸	163	3.35	.90		
	대학원 이상	69	3.51	.76		
	합계	290	3.27	.91		
가사활동	고졸 이하	20	2.68	1.07	13.725***	d>c>b>a
	전문대졸	38	3.32	1.06		
	대졸	163	3.74	.78		
	대학원 이상	69	3.89	.73		
	합계	290	3.65	.89		
전체	고졸 이하	20	2.75	.78	12.568***	d>c>b>a
	전문대졸	38	3.15	.92		
	대졸	163	3.59	.73		
	대학원 이상	69	3.72	.64		
	합계	290	3.51	.78		

*** $p < .001$. a=고졸이하, b=전문대졸, c=대졸, d=대학원이상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은 대학원졸 이상($M=3.76$, $SD=.79$), 대졸($M=3.69$, $SD=.82$), 전문대졸($M=3.23$, $SD=1.00$), 고졸 이하($M=3.04$, $SD=.85$)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884$, $p < 0.01$). 생활지도에서는 대학원졸 이상($M=3.51$, $SD=.76$), 대졸($M=3.35$, $SD=.90$), 전문대졸($M=2.91$, $SD=.98$), 고졸 이하($M=2.53$, $SD=.81$)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068, p<0.001$). 가사활동에서는 대학원졸 이상 ($M=3.89, SD=.73$), 대졸($M=3.74, SD=.78$), 전문대졸($M=3.32, SD=1.06$), 고졸 이하($M=2.68, SD=1.07$)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3.725, p<0.001$).

4) 어머니의 취업유무

<표 8> 어머니의 취업유무

		<i>N</i>	<i>M</i>	<i>SD</i>	<i>F</i>
자기관리	종일제근무	141	2.95	.57	2.444
	시간제근무	87	2.79	.56	
	비취업	62	2.95	.53	
	합계	290	2.90	.56	
자연적 보상	종일제근무	141	3.26	.32	1.014
	시간제근무	87	3.20	.41	
	비취업	62	3.20	.39	
	합계	290	3.23	.37	
건설적사고	종일제근무	141	3.23	.43	.788
	시간제근무	87	3.18	.43	
	비취업	62	3.15	.40	
	합계	290	3.20	.42	
셀프리더십전체	종일제근무	141	3.15	.34	1.774
	시간제근무	87	3.06	.37	
	비취업	62	3.10	.34	
	합계	290	3.11	.3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인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032, p<0.05$; $F=3.106, p<0.05$). 즉 여가활동은 어머니의 종일제근무는 평균 3.48($SD=.87$), 시간제근무는 평균 3.71($SD=.89$), 비취업은 평균 3.74($SD=.79$)로, 어머니의 비취업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는 어머니의 종일제근무 평균은 3.14($SD=.91$), 시간제근무 평균은 3.39($SD=.92$), 비취업 평균은 3.42($SD=.86$)로, 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비취업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하위요인인 가사활동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월 소득

표 9와 같이 월 소득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400만원 이상 3.72($SD=.74$), 300-400만원 3.52($SD=.77$), 300만원 이하 3.29($SD=.83$)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729, p<0.05$).

하위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생활지도는 월 소득 400만원 이상 평균은 3.53($SD=.93$), 300-400만원 평균은 3.27($SD=.91$), 300만원 이하 평균은 3.09($SD=.84$)로,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활동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 평균은 3.88($SD=.71$), 300-400만원 평균은 3.66($SD=.86$), 300만원 이하 평균은 3.42($SD=1.05$)로,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하위요인을 사후 검증 한 결과, 월 소득 400만원 이상, 300-400만원, 300만원 이하 순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한 차이를 보여 월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참여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하위요인인 여가활동에서는 월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월 소득

		N	M	SD	F	Duncan
여가활동	300만원 미만	53	3.37	.94	2.744	
	300-400만원	192	3.64	.85		
	400만원 이상	45	3.74	.81		
	합계	290	3.60	.87		
생활지도	300만원 이하	53	3.09	.84	2.873*	c>b>a
	300-400만원	192	3.27	.91		
	400만원 이상	45	3.53	.93		
	합계	290	3.27	.91		
가사활동	300만원 이하	53	3.42	1.05	3.406*	c>b>a
	300-400만원	192	3.66	.86		
	400만원 이상	45	3.88	.71		
	합계	290	3.65	.89		
전체	300만원 이하	53	3.29	.83	3.729*	c>b>a
	300-400만원	192	3.52	.77		
	400만원 이상	45	3.72	.74		
	합계	290	3.51	.78		

* $p < .05$. a=300만원 미만, b=300-400만원, c=400만원 이상

2. 유아와 부모의 일반 변인에 따른 유아 셀프 리더십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유아의 성별과 부모의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개인 변인에 따른 유아 셀프리더십

(1) 유아의 성별

<표 10> 유아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기관리	남아	143	2.82	.58	-2.574*
	여아	147	2.99	.54	
자연적 보상	남아	143	3.20	.39	-1.365
	여아	147	3.26	.33	
건설적사고	남아	143	3.14	.46	-2.566*
	여아	147	3.26	.38	
셀프리더십전체	남아	143	3.05	.36	-2.906**
	여아	147	3.17	.33	

* $p < .05$ ** $p < .01$

표 10과 같이 유아의 셀프리더십 총점은 남아는 평균 3.05($SD=.36$), 여아는 평균 3.17($SD=.33$)로 여아가 남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를 t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06$, $p < 0.01$).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에서도 여아의 평균이 모두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관리는 남아는 평균 2.82($SD=.58$), 여아는 평균 2.99($SD=.54$)로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관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4$, $p < 0.05$). 건설적 사고는 남아는 평균 3.14($SD=.46$), 여아는 평균 3.26($SD=.38$)

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건설적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66, p<0.05$).

그러나 나머지 하위요인인 자연적 보상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부모의 일반 변인에 따른 유아 셀프리더십

(1) 아버지의 연령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아버지의 연령

		<i>N</i>	<i>M</i>	<i>SD</i>	<i>t</i>
자기관리	30대	115	2.88	.553	.579
	40대	175	2.92	.571	
	합계	290	2.90	.563	
자연적 보상	30대	115	3.18	.355	2.038
	40대	175	3.27	.369	
	합계	290	3.23	.365	
건설적사고	30대	115	3.10	.452	3.293**
	40대	175	3.27	.391	
	합계	290	3.20	.423	
셀프리더십전체	30대	115	3.05	.357	2.342*
	40대	175	3.14	.340	
	합계	290	3.11	.350	

* $p<.05$ ** $p<.01$

유아 셀프리더십 전체에 관해서는 30대 평균이 3.05($SD=.36$), 40대가 3.14($SD=.3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42, p<0.05$).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하위요인인 건설적 사고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293, p<0.01$). 즉 건설적 사고는 40대 평균은 3.27($SD=.39$), 30대 평균은 3.10($SD=.45$)으로, 아버지의 연령이 40대 일 때, 유아의 셀프리더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관리에서는 전문대졸 ($M=3.03, SD=.45$), 대졸($M=2.90, SD=.58$), 대학원졸 이상($M=2.88, SD=.59$), 고졸 이하($M=2.76, SD=.55$)의 순, 자연적 보상에서는 전문대졸($M=3.28, SD=.32$), 대학원졸 이상($M=3.24, SD=.39$), 대졸($M=3.22, SD=.37$), 고졸 이하($M=3.19, SD=.37$)의 순, 건설적 사고에서는 대학원졸 이상($M=3.24, SD=.41$), 고졸 이하($M=3.22, SD=.36$), 대졸($M=3.19, SD=.43$), 전문대졸($M=3.18, SD=.45$)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아버지의 학력

		<i>N</i>	<i>M</i>	<i>SD</i>	<i>F</i>
자기관리	고졸 이하	20	2.76	.55	1.068
	전문대졸	38	3.03	.45	
	대졸	163	2.90	.58	
	대학원 이상	69	2.88	.59	
	합계	290	2.90	.56	
자연적 보상	고졸 이하	20	3.19	.37	.340
	전문대졸	38	3.28	.32	
	대졸	163	3.22	.37	
	대학원 이상	69	3.24	.39	
	합계	290	3.23	.37	
건설적사고	고졸 이하	20	3.22	.36	.272
	전문대졸	38	3.18	.45	
	대졸	163	3.19	.43	
	대학원 이상	69	3.24	.41	
	합계	290	3.20	.42	
셀프리더십전체	고졸 이하	20	3.06	.32	.475
	전문대졸	38	3.16	.33	
	대졸	163	3.10	.36	
	대학원 이상	69	3.12	.36	
	합계	290	3.11	.35	

(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아의 셀프리더십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아래 표 13와 같다.

<표 13> 어머니의 취업유무

		<i>N</i>	<i>M</i>	<i>SD</i>	<i>F</i>
자기관리	종일제근무	141	2.95	.57	2.444
	시간제근무	87	2.79	.56	
	비취업	62	2.95	.53	
	합계	290	2.90	.56	
자연적 보상	종일제근무	141	3.26	.32	1.014
	시간제근무	87	3.20	.41	
	비취업	62	3.20	.39	
	합계	290	3.23	.37	
건설적사고	종일제근무	141	3.23	.43	.788
	시간제근무	87	3.18	.43	
	비취업	62	3.15	.40	
	합계	290	3.20	.42	
셀프리더십전체	종일제근무	141	3.15	.34	1.774
	시간제근무	87	3.06	.37	
	비취업	62	3.10	.34	
	합계	290	3.11	.35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자기관리의 전체 평균은 2.90($SD=.56$), 자연적보상의 전체 평균은 3.23($SD=.37$), 건설적사고의 전체의 평균은 3.20($SD=.42$)의 수준을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월 소득

월 소득에 따른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4과 같다.

자기관리에서는 300-400만원 ($M=2.93$, $SD=.55$), 400만원 이상($M=2.89$, $SD=.62$), 300만원 이하($M=2.82$, $SD=.56$)의 순, 자연적 보상에서는 400만원 이상($M=3.29$, $SD=.29$), 300만원 이하($M=3.23$, $SD=.37$), 300-400만원($M=3.22$, $SD=.38$)의 순, 건설적 사고에서는 400만원 이상($M=3.29$, $SD=.32$), 300만원 이하($M=3.21$, $SD=.37$), 300-400만원($M=3.18$, $SD=.46$)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4> 월 소득

		<i>N</i>	<i>M</i>	<i>SD</i>	<i>F</i>
자기관리	300만원 이하	53	2.82	.56	.718
	300-400만원	192	2.93	.55	
	400만원 이상	45	2.89	.62	
	합계	290	2.90	.56	
자연적 보상	300만원 이하	53	3.23	.37	.691
	300-400만원	192	3.22	.38	
	400만원 이상	45	3.29	.29	
	합계	290	3.23	.37	
건설적사고	300만원 이하	53	3.21	.37	1.442
	300-400만원	192	3.18	.46	
	400만원 이상	45	3.29	.32	
	합계	290	3.20	.42	
셀프리더십전체	300만원 이하	53	3.09	.33	.568
	300-400만원	192	3.11	.37	
	400만원 이상	45	3.16	.30	
	합계	290	3.11	.35	

2) 유아의 개인 변인에 따른 유아 셀프리더십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유아 개인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형제 수

<표 15> 형제 수

		<i>N</i>	<i>M</i>	<i>SD</i>	<i>F</i>
자기관리	형제있음	236	2.91	.56	.380
	외동	54	2.86	.59	
	합계	290	2.90	.56	
자연적 보상	형제있음	236	3.22	.37	.506
	외동	54	3.26	.33	
	합계	290	3.23	.37	
건설적 사고	형제있음	236	3.21	.43	.382
	외동	54	3.17	.41	
	합계	290	3.20	.42	
셀프리더십 전체	형제있음	236	3.11	.35	.110
	외동	54	3.10	.35	
	합계	290	3.11	.35	

형제 수에 따른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표 15와 같다. 자기관리에서는 형제있음 ($M=2.91$, $SD=.56$), 외동($M=2.86$, $SD=.59$)의 순, 자연적 보상에서는 외동($M=3.26$, $SD=.33$), 형제있음($M=3.22$, $SD=.37$), 건설적 사고에서는 형제있음($M=3.21$, $SD=.43$), 외동($M=3.17$, $SD=.41$)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유아의 성별

<표 16> 유아의 성별

		<i>N</i>	<i>M</i>	<i>SD</i>	<i>t</i>
자기관리	남아	143	2.82	.58	-2.574*
	여아	147	2.99	.54	
자연적 보상	남아	143	3.20	.39	-1.365
	여아	147	3.26	.33	
건설적사고	남아	143	3.14	.46	-2.566*
	여아	147	3.26	.38	
셀프리더십전체	남아	143	3.05	.36	-2.906**
	여아	147	3.17	.33	

* $p < .05$ ** $p < .01$

표 16과 같이 유아의 셀프리더십 총점은 남아는 평균 3.05($SD=.36$), 여아는 평균 3.17($SD=.33$)로 여아가 남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를 t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06$, $p<0.01$).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에서도 여아의 평균이 모두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관리는 남아는 평균 2.82($SD=.58$), 여아는 평균 2.99($SD=.54$)로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관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4$, $p<0.05$). 건설적 사고는 남아는 평균 3.14($SD=.46$), 여아는 평균 3.26($SD=.38$)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건설적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66$, $p<0.05$).

그러나 나머지 하위요인인 자연적 보상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간의 관계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간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213, p<.01$).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셀프리더십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은 유아의 셀프리더십 전체($r=.173, p<.01$)와 자연적 보상($r=.142, p<.05$), 건설적 사고($r=.175, p<.01$)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생활지도는 유아의 셀프리더십 전체($r=.192, p<.01$)와 자기관리($r=.129, p<.05$), 자연적 보상($r=.121, p<.05$), 건설적사고($r=.199, p<.01$)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가사활동은 유아의 셀프리더십 전체($r=.198, p<.01$)와 자기관리($r=.131, p<.05$), 자연적 보상($r=.184, p<.01$), 건설적사고($r=.196, p<.01$)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간의 관계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부양육참여	자기관리	자연적보상	건설적사고	셀프리더십
여가활동	1							
생활지도	.706**	1						
가사활동	.616**	.677**	1					
부양육참여	.875**	.903**	.867**	1				
자기관리	.100	.129*	.117*	.131*	1			
자연적보상	.142*	.121*	.223**	.184**	.340**	1		
건설적사고	.175**	.199**	.143*	.196**	.329**	.561**	1	
셀프리더십	.173**	.192**	.198**	.213**	.788**	.758**	.775**	1

* $p < .05$ ** $p < .01$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전체를 투입하여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2%이고, 그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3.69, p<.001$).

<표 1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 (상수)	B	β	t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전체	.095	.213	3.700***
$R^2=.242, F=13.69***$			

*** $p<.001$

(1) 양육참여도 하위변인이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변인이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19과 같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6%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62, p<.01$). 독립변수에서는 가사활동($\beta=.115, p<.05$)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셀프리더십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변인이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	<i>B</i>	β	<i>t</i>
(상수)	2.778		29.217
여가활동	.018	.044	.518
생활지도	.032	.083	.921
가사활동	.045	.115	2.410*

R²=.246, F=4.62**

* $p < .05$ ** $p < .01$

(2) 양육참여도 하위변인이 셀프리더십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

표 2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기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76, p>.001$).

<표 2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요인	<i>B</i>	β	<i>t</i>
(상수)	2.588		16.655
여가활동	.002	.002	.028
생활지도	.056	.090	.984
가사활동	.034	.054	.655

R²=.018, F=1.76

*** $p < .001$

독립변수에서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연적 보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	<i>B</i>	β	<i>t</i>
(상수)	2.893		29.217
여가활동	.018	.043	.511
생활지도	-.031	-.078	-.863
가사활동	.103	.249	3.075**
R ² =.252, F=5.26***			

***p*<.01

위의 <표 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연적 보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2%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26, p<.01$) 독립변수에서는 가사활동($\beta=.249, p<.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활동, 생활지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건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요인	<i>B</i>	β	<i>t</i>
(상수)	2.852		24.716
여가활동	.033	.068	.803
생활지도	.071	.154	1.692
가사활동	-.001	-.003	-.037
R ² =.042, F=4.18			

****p*<.001

위의 표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건설적 사고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인식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핀 후,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와 가정 변인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

부모 및 가정의 개인변인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에서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를 연구변인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양육참여도면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 중 가사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충량(2011)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짐차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가고 있다하더라도 어머니의 연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나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중요한 변인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아버지의 연령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가활동 및 생활지도에서만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 수록 유아의 셀프 리더십도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높다는 결론을 나타냈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증가(김미영, 1984; 최한순, 1995; 허경옥, 1994a; Bigner, 1979) 한다는 연구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아버지의 연령 외에, 자녀와의 양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직업적인 요인이나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양육 행동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 들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전체의 경우에는 권미선(2011)과 어옥자(2003)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셀프리더십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차이는 곽은희(2011)와 송민선(2009), 안병철

(199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체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취업모의 배우자가 비취업모의 배우자에 비해 가사일이나 양육참여에 더 참여한다는 연구결과들(김정, 2005; 이영환, 2008; 조숙인, 2010; McBride, et, al., 2005; Volling & Belsky, 1991; Baruch & Barnett, 1986; Lamb, 1981)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하위 변인인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가 비취업 중이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머니 학력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유아의 셀프리더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보다 대학원졸 이상의 경우 양육참여도가 높았는데, 이는 김미영(2009), 변수정(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여성의 학력이 신장됨으로써, 사회진출이 증가되고 전문직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아버지들이 과거 전통 관념에서 벗어나 자녀양육 문제는 결코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아버지 학력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유아의 셀프리더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의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지연(2007), 곽은희(2011), 박미라(2011), 송민선(2009), 황보영(200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양육참여도와 아버지의 학력과는 무관하다는 연구들(이지희, 2005; 한은규, 2004; Binger, 1979; Harris &

Marsiglio, 1991)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 결과들(김경희, 2000; 김은정, 2002; 이충량, 2011; 박운영, 2005; 이현정, 2005; 홍영희, 2006; 황순영, 2004; Volling & Belsky, 1991)과도 일치한다.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경우에는 권미선(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학력이 유아의 리더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육자(2003)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연구이다.

여섯째, 가정의 월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유아의 셀프리더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이충량(201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역할 수행도가 높았다고 밝힌 김경희(2000)와 김미란(1985)의 연구와 수입이 많을수록 아버지 양육참여 중 여가활동 참여가 높게 나타난 한은규(2004)의 연구와 같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월 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와 여가활동 등을 함께 하여 자녀가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조력하므로 유아의 셀프리더십 형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유아의 개인 변인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

유아의 개인변인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유아의 셀프리더십에서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를 연구변인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형제 수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형제 수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권미선(2011)의 연구와 동일하게 유아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의한 차이를 없었으나,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 셀프 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기관리,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김유경, 2012). 이는 김진혜(2009), 서기남(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 리더십에는 남아 및 여아에 따른 리더십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지능이 높고(김은정, 2002), 김기영(2005)의 친사회성과 조직적인 리더십이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가사활동은 유아의 셀프리더십 전체와 건설적 사고, 자연적 보상, 자기관리 모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버지의 생활지도 역시 유아의 셀프리더십 전체와 건설적 사고, 자연적 보상, 자기관리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전체와 건설적 사고 및 자연적 보상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기관리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권미선(2011)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신체적 돌보기 및 생활지도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은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과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전체는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유아 리더십 전체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돌보기, 생활지도, 특히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이 높은 수준의 상관을 갖고 있으며, 유아리더십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이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셀프리더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독립변수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전체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며 하위 요인 간의 영향력은 아버지의 가사활동과 유아의 자연적 보상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분석에서 이미 언급했던 권미선(2011)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버지의 연령, 부모의 학력과 가정 내 월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전업주부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연령이, 부모의 학력과 가정 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유아의 셀프리더십은 아버지의 연령과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아가 남자보다 셀프리더십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가사활동과 생활지도는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전체 및 건설적 사고와 자연적 보상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기관리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전체가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24.2%로 나타나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 연령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연령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의 연령을 만 3, 4, 5세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연령에 속한 유아들에게서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일대의 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 350명에게 배부하여 응답의 성실도가 높은 290명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전국으로 확장하여 좀 더 객관적인 연구결과로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어머니의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는 설문지에만 의존한 조사 연구였으므로 관찰이나 면접이 없어 심층적인 정보수집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측정을 위해 유아관찰과 부모의 평가 등을 함께 사용하여 더욱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는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미흡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 외에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가정 요인, 유아교육기관 요인, 유아-교사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규아(2006). 아버지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관혜(198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역할 특성간의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은아(2010). 유아의 기질 유형에 따른 유아 리더십 프로그램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은희(2011).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성역할 고정관념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록이(2010).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 효능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미선(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 리더십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영아(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기현주(2004). 형제구조 · 어머니의 형제대우 및 또래 유능성과 형제 상호작용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 정(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연(2011). 유아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이 셀프리더십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2000).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기순(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영(2005). 또래 상호작용 속에서의 유아리더십. 숙명여자대학교 원격유아교육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덕희(2005). 외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란(198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요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선(2005). 유아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영(1984). 아버지 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영(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진(2009). 유아 리더십 프로그램이 유아 셀프리더십과 개인지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희 · 박성연(1999).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인구학적 변인. **아동학회지**, 11(2), 59-81.
- 김석현(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령(2006).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미(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가정 내 역할 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숙(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주(1995). 신문에 실린 아동 양육 관련 기사를 통해서 본 아버지 역할 내

용분석: 1920년대에서 197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53-166.

- 김유경(200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지각과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경(2012). 유아 셀프 리더십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 간의 관계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신(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호(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놀이참여와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연(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혜(2009). 아버지의 놀이참여 및 놀이성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선(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미순(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순후(2010). MeFOT 창의적 사고훈련이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미옥(1983). 유아기자녀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병환 · 김세루(2011). 아버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프 리더십 및 유치원 적응력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97-113.
- 민혜진(2009). 유아셀프리더십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두미(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라(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숙(2008).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아(2010). 유아의 리더십, 친사회적 행동 및 기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순(1990). 영유아의 사회성 및 인지발달에 관한 아버지의 참여도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운영(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및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익새(2012).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원(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수(2010). 아버지 리더십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정(2008). 만 3세 유아를 위한 리더십교육효과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행연(2004). 아버지의 역할수행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수정(2003).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기남(2009).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연구-유아의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현아(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18(2), 117-140.
- 성귀자(1999).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민선(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명숙(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병철(1990). 한국 남성의 가족 역할. **한양대학교**. 9. 231-253.
- 안현옥(2008).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득주(198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취학 전 아동의 성 특성 고정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미정(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어욱자(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경(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수행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숙현(2003). 유아기 주도성 형성교육 탐색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27-251.
- 오정인(2012).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단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미경(200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정순(2009). 유아의 기질과 유아 리더십 관계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경애(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대원(2003). 선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효순·지성애(2004),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윤옥순(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교육 인지도 조사 : 대구 지역 중심으로. 경운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 배(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숙(2006). 유아 셀프 리더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숙, 조희정(2006). 유아의 사고방식으로서의 셀프 리더십 요인 분석 및 수업활동.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41-261.
- 이미선(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복동(2011).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순(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환(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이옥자(1983).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 참여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이(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선(200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미(2006). 유아 리더십과 부모 양육태도 관계 분석.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실(2007).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영(2009).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진(2004). 유아 대인관계 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한국아동학회지**, 19(2), 65-75.
- 이인숙(1992). 부모의 성역할 유형, 부부간 권력 유형과 아버지의 아기 자녀 양육 참여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9-108.
- 이정희(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희(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미(2011). 유리드믹스 프로그램이 유아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 만 5세 유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희(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응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충량(2011).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행옥(1988).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숙(2008). 교사의 DAP 신념 및 교사활동과 유아의 셀프리더십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숙(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주도성과의 관계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정(2005).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지(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혜성(2010). 유아리더십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 이영자(2003).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장윤희(2010).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혜진(200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경숙(2000).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 정서적 능력과의

- 관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금숙(201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정(2007). 유아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정·김규수(2009). 유아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조망수용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283-301.
- 정윤주(2010). 유아의 지능,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희(2003).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역할 만족도와 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7. 11-19.
-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조복희(1999),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성자(200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숙인(2010). 어머니의 취업 및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선(1998).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 성숙도 및 사회문제 해결 전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나영(2012). 유아 리더십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진지혜(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은영(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간의 활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순, 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125-139.
- 최남례(2005). 유아 서번트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자윤(2009). 유아 셀프리더십 평가도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희(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정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효정(2011).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유아교육기관 참여 프로그램이 유아 셀프리더십과 대인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명숙(2007).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유아-아버지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민경, 한윤정(2009). 유아 셀프 리더십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 정서지능의 영향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19-250.
- 한은규(2004).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은정(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혜진(2009).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및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경옥(1994). 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

- 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지선(2012). 아버지 양육 행동 및 놀이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미숙(2004). 유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PIS)의 개발. **아동학회지**, 25(6), 15-34.
- 홍영희(2006).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보영(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선실(2011).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영(200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2005).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4(4), 521-529.
- Baruch, G. K., & Barnett, R. C.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7, 3-23.
- Baruch, G., & Barnett, R. (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 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 1211-1233.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Bigner, J. J. (1979). *Parent-child relation*, New York: Macmillan.
- Covey, S.(2003). 성공하는 7가지 습관[*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teens*]. (김경선, 유광태 역). 서울: 김영사(원서 1999 출판).

- Fargan, J., & Barnett,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Competence, Mothers' Attitudes about the Father Role,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8), 1020-1043.
- Harris., K. M., & Morgan, S. P. (1991). Father sons, and daughters: differential involvement in parenting. *Marriage and the Family, 53*. 531-544.
- Hoffman, L. W. (1977).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84*, 712-722.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L. S.(1994). Leadership " Rethinking it-making it happen. *Young Children, 59*(4), 50-54.
- Katz. L. G.(1985). Research Currents: Teacher as Learners. *Language arts, 62*(7), 778-782.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Lamb, D. B(1974). *The father. His role in development*. Monterey, California: Brooks Cole.
- Lamb, M. E(1976). Interactions between 8-Month-olds children and their father and mother,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307-327). NY: Wiley & Sons.
- Lamb, M. E(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Ed), *The role of ag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ly.

- Lamb, M. E.(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Y: Willy.
- Lamb, M. E.(1995).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김광웅, 박성연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서 1981 출판).
- Lamb, M. E.(2000). A history of research in father involvement : An overview.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23-42.
- Lamb, M. 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 A.,(1987). *A biosocial perspective in paternal behavior and involvement*. Social Research Council : NY.
- Lamb, M. E., Pleck, J. H., & Levin, J. A. (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The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 S. Lathed & A. E. Kan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8 (pp. 229-266). New York: Plenum.
- Linden, J. A., & Fertman, C. I.(1998). *Youth Leadership : A guide to Understanding Leadership Development in Adolescents*. Jossey- Bass Inc.
- Lumimis, T. (1982). The historical dimension of fatherhood: A case study. 1890-1914. In L. Mekee & M, O'briein (Eds.), *The father figure* (pp. 43-56). London: Tavistock.
- Lynn, D. B.(1974). *The father. His role in development*,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 pp.99-103.
- Lynn, D. B.(1981). *The father. His role in development*. Monterey, California; Brooks Cole.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avamovich Inc. Kennedy, J. h(1992). Relationship of.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s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anz, C. C.(1986). Self-Leadership : Toward expended theory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Manz, C. C.(1990). The art of self-leadership. *Executive Excellence, 7*(8), 7-8.
- Manz, C. C., Neck, C. P.(2004). *Mastering self-leadership :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Prentice Hall.
- Manz, C. C., Sims, H. P.(1990). Super 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 18-35.
- Manz, C. C., Sims, H. P.(2002). 슈퍼리더십[*Super Leadership*]. 서울 : 경문사.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 3-31). New York: Basic Books.
- Mayer, P. J., Slechta. R.(2002). *Pillars of Leadership*. Insight Publishing Group
- McBride, B. A., Brown, G. L., Bost, K. K., Shin, N., Vaughn, B., & Korth, B(2005). Paternal Identity,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

- Involvement. *Family relations*, 54, 360-372.
- McCay, R. & Keyes(2002).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in the inclusive primary classroom. *Childhood Education*, 78(2).70-78
- Mekee, L., O'Brien, M.(Eds.) (1982), *The father figure*. New York: Tavistock.
- Merrell. K. W. (1993). Using behavior rating scales to assess social skills and antisocial behavior in school rating: development of the school social behavior scales. *School Psychology Review*. 22, 115-133.
- Parke,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 R. D(1981). *fathering*. Camb 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Parke, R. D(1989). 좋은 아빠: 아버지의 자녀교육[*the father*]김성봉 옮김. 서울: 샘터사(원서 1981 출판).
- Radin, N.(1973). Observed Paternal behaviors as antecedents of intellectual functioning in young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8, 369-376
- Radin, N.(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ognitive, academic,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In M. E. Lamb (Ed.),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2nd ed., pp. 379-428). New York: John Wiley & Sons.
- Russell, G., & Russell, A.(1987). Mother- child and r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5.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rader, C. T.(1990). Symbolic play as a curricular tool for early literacy develop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79-103.
- Silverman, L. W., & Regusa. D. M. (1992).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the early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0*, 415-435.
- Volling, B. & Belsky, J.(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 461-474.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children that a mother recognized and children's
self-leadership

An, Jin-Mi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a mother's recognition of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and of children's self-leadership changes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and to figure out what relationship is between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that a mother recognized and of children's self-leadership. For this, followings are suggested:

1. Does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that a mother recognized change according to parents' and children's personal variables?
2. Does an infant's self-leadership change according to parents' and children's personal variables?
3.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that a mother recognized and children's self-leadership?
4. What influence does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that a mother

recognized have on children's self-leadership?

In order to identify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that a mother recognized and its influence on children's self-leadership, the study was investigated 350 parents of infants education institutes (kindergartens, Child Care Centers) that are located within the areas of Seoul and Gyeonggi-do. 3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m and 290 responses out of them were used for this study by excluding no response or insincere responses and by selecting sincere responses.

The research tools were the tool for measuring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that a mother recognized that was invented by Kim, Jeong (2005) and, with respect to children's self-leadership, the scale of children self-leadership that was developed by Lee, Myeongsuk (2006) was used.

In treating the statistics of gathered information,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research problems.

The outcome is as followings:

First, it was indicated that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changed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father's age, parents' academic status, and household's monthly income. In other words, there was a trend that when a mother is a house wife, a father's participation was highly recognized. Moreover, father's participation was more highly recognized when a father's age is older, parents' academic status and a household's income are higher.

Second, children's self-leadership changed according to a father's age

and children's gender. That is to say, the older a father was, the more recognized the constructive thought of children's self-leadership was. And, it was thought that a girl had more self-leadership than a boy did.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that a mother recognized and children's self-leadership revealed the static significant correlation. In other words, a father's domestic activity and life instruct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hildren's self-leadership.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 father's leisure activity and the whole and constructive thought of children's self-leadership, and yet with respect to self-management there was no correlation.

Fourth, it was revealed that a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that a mother recognized had a static impact on children's self-leadership. In other words, it was shown that a father's entire participation in nurturing that a mother recognized had an impact on children's self-leadership, whose percentage was 24.2% and thus that i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부록

1.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 질문지
2. 유아 셀프리더십에 관한 설문지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 석사학위 논문의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로써,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기질, 유아의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나 오답이 없으며, 질문을 잘 읽어보신 후 평소에 어머니가 지각하신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신 사항은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성하신 질문지는 자녀를 통해 보내드린 봉투에 넣어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연구에 도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 전공
지도교수 : 권 경 속
연구자 : 안 진 민

◇ 이 부분은 어머니 가족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해당란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에서 유아는,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본 설문지를 가지고 온 유아에 대한 사항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기초조사는 총 7문항입니다.

1. 대상 유아의 성별 : ① 남아 ② 여아
2. 가족 수 :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6명 이상
3. 출생순위 : ① __남 __녀 중 __째, ② 외동
4. 어머니와 아버님의 연령을 표시해 주십시오.
어머니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아버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5. 월 소득수준 : ① 200 만원미만 ② 200 ~ 300 만원
③ 300~400 만원 ④ 400 만원이상
6. 어머니와 아버님의 학력을 표시해 주십시오.
어머니 : ①고졸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 이상
아버님 : ①고졸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 이상
7. 어머니의 본인의 취업 유무 : ① 종일제근무 ② 시간제 근무 ③ 비취업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

◇ 다음은 귀하의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지각하는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V표해 주십시오.

NO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끔 자녀와 함께 영화관에 간다.					
2	자녀가 실수했을 때,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자상하게 알려준다.					
3	설거지를 돕는다.					
4	자녀가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어 준다.					
5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다.					
6	자녀가 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7	자녀의 놀이상대가 되어준다.					
8	친구를 정돈한다.					
9	자녀와 함께 공원이나 놀이터에 간다.					
10	자녀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알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한다.					
11	자녀와 함께 놀이나 취미생활(등산, 스포츠, 낚시 등)을 한다.					
12	자녀가 놀고 있을 때 허물없이 끼어들어 어린이들이 노는 방식대로 놀아준다.					
13	어떤 일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이야기 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14	자녀와 함께 외출이나 놀아주는 일을 좋아한다.					
15	세탁을 돕는다.					
16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말로 설명해 준다.					
17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18	자녀와 함께 친지방문이나 외출을 자주한다.					
19	바쁘더라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20	식사준비를 돕는다.					
21	자녀에게 친구의 입장에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준다.					
22	자녀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도록 권한다.					
23	자녀가 신체발달을 위해 함께 운동한다.					
24	자녀와 함께 유원지에 간다.					
25	자녀를 동/식물원이나 어린이회관에 데려간다.					

유아 셀프리더십에 관한 설문지

◇ 다음은 유아의 셀프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아들을 관찰 했을 때, 각 문항 번호에 관련된 행동이 10번 중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V표해 주십시오.

NO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계획을 잘 세운다.				
2	우리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				
3	우리 아이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다.				
4	우리 아이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5	우리 아이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지만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6	우리 아이는 일을 하기 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다.				
7	우리 아이는 자신의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안다.				
8	우리 아이는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				
9	우리 아이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도 끈기있게 해낸다.				
10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양한 해결방법을 비교해 본다.				
11	우리 아이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을 줄 안다.				
12	우리 아이는 하던 일이나 놀이를 끝까지 한다.				
13	우리 아이는 자신을 존중한다.				
14	우리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려울 때 더 열심히 노력한다.				
15	우리 아이는 자신이 결심한 일에 관해 어떤 노력이라도 계속 한다.				
16	우리 아이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가지고 놀이를 시도한다.				
17	우리 아이는 자신의 강점을 알고 활용하려고 생각한다.				
18	우리 아이는 어려운 상황일 때 노력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9	우리 아이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20	우리 아이는 게임에서 졌을 경우 화내지 않고 결과를 수용한다.				

NO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22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 생기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23	우리 아이는 오늘 할 일을 순서대로 잘 알고 있다.				
24	우리 아이는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번 노력한다.				
25	우리 아이는 일을 잘 해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다.				
26	우리 아이는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본다.				
27	우리 아이는 작품을 완성한 후,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 다음 활동에 적용한다.				
28	우리 아이는 일을 잘 했을 때, 자신에게 만족한다.				
29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들만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	우리 아이는 때때로 어려운 과제를 피해간다.				
31	우리 아이는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본다.				
32	우리 아이는 일을 잘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33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원래 잘 하는 것이 아니면 포기한다.				
34	우리 아이는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5	우리 아이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뉠대로 생각을 정리하여 연습한다.				
36	우리 아이는 일을 잘 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37	우리 아이는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흥미를 느낀다.				
38	우리 아이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자신을 “넌 잘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한다.				
39	우리 아이는 새로운 일을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후 연습한다.				
40	우리 아이는 실수 했을 때에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	우리 아이는 도전을 받을 때 더 잘한다.				
42	우리 아이는 일을 잘 했을 때, 자신에게 행동(오른손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최고 등)으로 칭찬한다.				
43	우리 아이는 이야기 나누기 등의 활동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NO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4	우리 아이는 일을 잘 했을 때 자신에게 말로 칭찬한다.				
45	우리 아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나 실패를 했을 때 자기행동을 수정해야 하는 방법을 찾는다.				
46	우리 아이는 하던 일이 잘 안되면 큰 소리로 울거나 발을 구른다.				
47	우리 아이는 일을 실제 하기 전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일을 처리한다.				
48	우리 아이는 일일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는다.				
49	우리 아이는 일을 잘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행동적인 칭찬을 받는다.				
50	우리 아이는 실수를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1	우리 아이는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감사합니다.